

**土種 홍화씨**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 전통  
● 원조기 동년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명상수련 댄스 컴퓨터  
신문제작 자원봉사 운동

...

교계 복지관-청소년 단체  
동아리 활동 다채



◇청주 상당고등학교 파라미터 명상수련반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학교예절실에서 좌정하여 자신을 관조하는 수련활동으로 한층 성숙해진다.

## 꿈도 '쭈쭈' 불심도 '쭈쭈'

11월 23일 오후 5시 서울 구로종합복지관 3층 강당으로 교복차림의 남녀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준비해 온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10여명의 학생들은 어느새 강당 한복판에서 저마다 준비운동을 하며 대열을 맞춘다.

"어깨를 앞으로 당기면서 팔을 늘어뜨리고 앞으로 나갔다 가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창 유행하는 댄스그룹 SES의 최신곡 '리브'를 배경음악으로 거울을 보고 춤연습에 한창인 이들 청소년들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유행한 청소년 댄스그룹 '위(We)'의 회원들이다.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렸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흥겨운 리듬에 몸을 내맡긴다. 지난해부터 댄스동아리 활동을 해 온 박수진양(영서중 2년)의 꿈은 전문 댄서가 되는 것. 이미 '위' 출신 5명의 선배들이 전문 댄서로 발탁돼 활동중이었고, 그런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힘든 춤연습에 비지함을 즐긴다.

박양은 "춤추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어른들은 춤추는 저희들을 조금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지만 저희는 불량학생이 아니에요. 다만 어른들과 미래에 대한 방향이 좀 다른 것 뿐이예요. 언니 오빠들과 매주 화, 목요일 오후에 모여서 새로운 춤 안무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특별한 상취감 같은 걸 느껴요."라고 말한다.

댄스동아리 위는 신입회원도 회원모두가 직접 심사를 통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댄스동아리 '위(we)', 복지관 3층 강당에서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동아리 '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결성된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는 종교의 이념을 초월한 청소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농인종합복지관의 농인청소년축구단. 인근 개포1·2동 구룡마을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축구단 동아리를 통해 건장한 심신을 기르고 기량을 펼칠수 있는 문화환경을 제공한다.

년 댄스동아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춤, 컴퓨터, 영화 등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청소년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즐긴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의 동아리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구로복지관 안영순 복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전전한 놀이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복지관에서 방과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댄스와 컴퓨터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와 연계된 동아리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도는 다양한 휴식공간이 없어 자칫 움직임에서 방향할 수 있는 청소년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탈선과 비행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복지관 중심의 동아리활동과는 조금 다르지만 학교 내에서의 불교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96년 파라미터 청소년연합회 창립이후 공립학교 이외의 일반학교에서도 특활 활동의 하나로 파라미터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불교학생회 형식으로 명성여중, 동대부고 등 중립학교에서 불교동아리모임이 열리고 있고, 서울 선덕고등학교, 동해 광희중학교 등에서도 법회와 문화재재호활동을 전개하는 불교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주 상당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화된 동아리활동도 대변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학교내 예절실에서 파라미터 명상수련반 동아리가 모임을 갖는다. 11월 24일에도 50여명의 학생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자! 오늘은 정면따옴표가 명상을 해 보는 겁니다. 모든 중심, 기력을 단전에 두세요. 허리는 펴고, 혀는 입천장과 윗입술 사이에 딱은 앞으로 당기고 가장 행복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관을 하는 겁니다."

최신교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명상수련반은 상당고 23개 동아리 가운데 이쪽 동아리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불교종립학교가 아니고서는 쉽지않은 신행활동을 동아리 모임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수련반에서는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축제에는 명상수련반 모든 회원들이 직접 연 등을 만들어 학교정문입구를 장식하기도 했다.

최교사는 "명상수련외에 자율적으로 선제조도 실시하고 가까운 사자를 찾아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학교생활에 또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면서 "동아리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동시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불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총회원 170여명인 상당고 파라미터 명상수련반은 이번 겨울 방학에 인근의 관음사와 법주사 등지에서 명상수련을 결합 문화재보호 자원봉사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청소년화해위원회 인천지부의 동아리 청소년인권봉사단은 얼마전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사건때 청소년인권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최근 결성된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도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선배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새해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청소년기의 활발한 동아리활동은 그들의 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고, 정서적 욕구와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교종립학교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은 딱딱하게 불교를 가르치지 보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세계에 불교를 혼합시키는 자연스러운 포교의 변화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건전 놀이문화 마련  
탈선-비행 예방  
자연스런 포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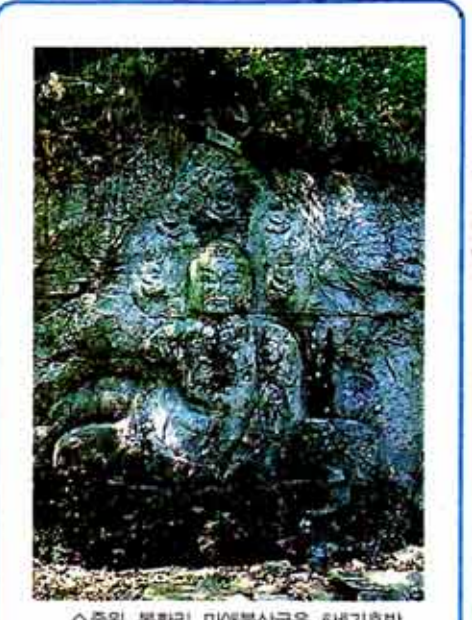
선발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꾸려나가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운영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공부요, 체험이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치열한 입시전쟁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은 그들에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종의 비상구다.

최근 복지관과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이같은 동아리를 찾아오면서 각 복지관과 단체마다 수능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구로복지관에는 댄스동아리 '위' 외에도 또다른 댄스동아리 '자강불식', 컴퓨터 동아리 '다-덤버', 신문제작동아리 '왐(wam)', 자원봉사 동아리 '한우리'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 1회 모임을 통해 홈페이지제작을 연구하기도 하고, 복지관 곳곳을 청소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건전여가활동을 즐긴다. 또 매월 각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월례모임을 거쳐 활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한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동아리들의 송년의 밤도 열 계획이다. 서로의 동아리활동을 격려해주고 한해동안의 활동을 결산하기 위해서다.

농인종합복지관에서도 올해초부터 사·회·우(사랑과 희망을 주는 우리의 약자), 농인청소년축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등의 동아리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목동청소년회관에서 댄스동아리와 방송연습동아리들이 활동중이다. 부산 양정 청소년회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컴퓨터, 영화제작, 자원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요구로 내년에 청소년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6세기후반의, 초기 마애불 형식을 보여준다.

**마애불을 찾아서**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상체 짧고 머리주위 화불배치  
6세기후반 조각특징 보여줘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 개울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좋은 산중턱 바위 푸곳에 조각된 삼국시대 마애불이다. 본존으로 여겨지는 큰 마애불은 따로 흠집한 암면에 부조되어 있는데 무릎이 유난히 넓고 높은 결구부착한 좌불상이다. 무릎에 비해서 상체는 짧고 네모 났으며 얼굴도 방형에 가까워 초기 마애불의 기법으로 생각된다. 얼굴의 형태나 미소 역시 고졸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주위에 배치된 화불은 복치리 마애불의 화불과 유사하다. 이 본존불에서 약간 떨어진 마애불상군은 일단 턱이 긴 앞면에 8구의 불보살 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왼쪽에는 무릎부 분이 깨어진 불보살이 있고 불좌상 왼쪽에는 한 무릎을 굽은 공양보살이 있는데 시무외인 여인의 인상이나 힘있는 얼굴과 강건한 체구 그리고 세징한 공양자 형태 등 6세기 후반의 조각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 유형문화재 131호.

글·사진=불자포교시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釋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백을 좌안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엔에서 신비의 기운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 뒤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0336호)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용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 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제헌 율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벗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람이나 불자님들의 봉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를 부록, 이름 등 어떠한 문구나 색상도 크게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비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자...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송 가능하며 최고의 신비 달마도를 고급 포우매(27cm×30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해운 율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선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세트) : 2만원에 판매

※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재조판매: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